

여순사건 피해 신고 독려 나선다

여수시 접수 560건 신고 '저조' 5개월 남은 피해 신고 총력 대응 시, 찾아가는 원스톱서비스 집중

여순사건 특별법이 사건 발발 73년 만에 제정됐지만, 이후 추진 중인 피해 신고가 저조해 대책이 뒤따라야 할 전망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율은 낮고 있으나 지난 19일 기준 560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남도에 접수된 신고는 2733건이다. 이는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사건이 발생한 지

74년이 지나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 연좌제 피해로 인한 신고 기피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시는 여순사건 피해 신고가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보고 내년 1월 20일까지 남은 기간 단 한 명의 희생자와 유족이라도 더 신고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올해 3월부터 '찾아가는 여순사건 피해 신고'와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사실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고,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방식이다. 피해 신고 시 희생자·유족의 가족관계, 피해 사실, 보증인 보증서 등이 요구되며, 이를 토대로 신

속한 처리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신고인이 고령으로 이동이 불편하거나 병원에 입원 중일 경우 사전에 장소를 협의해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찾아가는 피해 신고, 원스톱 서비스뿐만 아니라 보존된 사료와 진실화해위원회 자료 등을 분석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 발굴을 진행하기로 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피해 신고 기간이 5개월 밖에 남지 않아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단 한 사람, 단 한 건도 누락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피해 신고', '원스톱 서비스' 등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구례군 옛 문척교 철거 추진에...주민 "수해와 관계없다" 반발

주민 동의 없는 철거 반대 성명 침수 직접적 원인 정확히 밝혀야

구례군이 수해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문척교를 철거하려 하자(광주일보 2022년 8월 16일자 14면 보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옛 문척교 보존을 위한 구례군민 대책위원회는 23일 구례군청과 광주 서구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동의 없는 문척교 철거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구례군은 지난 2020년 8월 수해가 발생한 후 문척교가 섬진강 제방보다 낮게 설치돼 있다고 보고 문척교 철거와 대체 인도교 설치를 추진해왔다. 대책위는 "수해는 문척교 때문에 발생한 물난리가 아닌데도 군은 문척교가 수해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유래없는 대량방류로 인한 참사이고 양정마을과 구례오일시장 침수의 직접적 원인은 서시천 제방 붕괴였다"고 주장했다. 또 "구례군은 서시교 주변 등 구례 전역에 진행 중인 수해복구 사업 및 추진과정에 대해서도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옛 문척교 보존을 위한 구례군민 대책위원회가 23일 구례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동의 없는 문척교 철거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옛 문척교는 1972년에 지어져 섬진강으로 나뉘는 주민 600명의 서명을 구례군과 영산강환경청에 전달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곡성군, 명사 초청 청년 토크 콘서트 개최

9월 7일 방송인 선 강연

방송인 선(사진)이 곡성을 찾는다. 곡성군은 오는 9월 7일 곡성군 레저문화센터 동아아트홀에서 방송인 선을 초청해 청년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은 '지금 이 순간을 선물처럼 사는 몇가지 방

법'이라는 주제로 청년들에게 행복한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특히 삶의 가치를 스스로 행복의 창조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면서 관객들과 소통한다. 강연은 군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 전화 접수제로 진행된다. 자세한 문의나 사전 접수는 곡성

군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행사를 마련한 곡성군 관계자는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청년 멘토와 만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광양 '매실원주', 남도 전통주 품평회 최우수상

백운주·백운대나무술 우수상

매실, 복분자, 대나무 등을 재료로 광양에서 만들어진 전통주들이 남도 전통주 품평회에서 상을 수상,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광양시는 최근 열린 '2022년 남도 전통주 품평회'에서 (주)더한주류(대표 한상현)가 기타주류(매실원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농업회사법인 (주)백운주가(대표 최창식)가 기타주류(골드복분자주), 약·청주(백운대나무술)에서 부문별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남도 전통주 품평회'는 전남도 내 우수 전통주를 발굴·시상함으로써 남도 전통주의 위상을 높이고 품질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남도가 주최하는 술 품평회다. (주)더한주류 '매실원주'는 국내 유일 기타 과실주를 첨가하지 않고 황매실로 담근 100% 매실주이며, 완숙한 상태에서 수확되는 황매실을 특허 받은 제조기술로 담가 본연의 향미를 더해 전통 제조방법으로 실험 대신 꿀을 가미해 완벽한 조화를 이뤘고, 이처럼 특별한 점을 인정받아 세계 3대 주류품평회와 우리술 품평회에서 수상했다. (주)백운주가 '골드복분자주'는 광양의 풍부한 일조량을 받고 자란 복분자를 저온 숙성해 복분자 본연의 맛과 향이 그대로 살아있고 은은한 단맛과 감칠맛이 뛰어난 제품으로 매년 주류품평회에서



최근 열린 '2022년 남도 전통주 품평회'에서 한상현 (주)더한주류 대표(왼쪽)과 최창식 (주)백운주가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입상하는 명품 전통주이다. '백운대나무술'은 백운산의 깨끗한 물과 대나무를 이용해 빚은 약주로, 저온 장기 발효공법과 자체 개발한 향균포를 이용해 잡냄새를 잡아 대나무 특유의 은은한 향과 시원한 목넘김으로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깔끔한 맛이 일품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만국가정원서 '비움과 채움의 맨발걷기' 특강

26일 맨발걷기 효용성 강의 시, 순천만에 여성길 조성 추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준비가 한창인 순천만국가정원 습지센터에서 맨발 걷기 특강이 열린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6일 순천만습지센터 입체영상관에서 '비움과 채움의 맨발걷기' 주제의 특강을 개최한다. 특강은 맨발학교 교장으로 활동 중인 권택환 대구교육대학교 교수가 강사로 나서 어싱의 개념과 맨발걷기의 효용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최근 맨발걷기로 긍정적 신체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땅과 신체가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체내에 쌓인 정전기를 배출하고 땅의 음이온성 자유전자를 몸으로 흡수시켜 면역력을 높이는

'어싱(earth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 권역으로 포함된 순천만의 생태환경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도록 순천만 램사르길 4.5km 구간에 '순천만 어싱길' 조성을 추진 중이다. 시는 2023정원박람회 개최 시기에 맞춰 어싱길을 개장해 순천시민의 특색을 담은 새로운 웰니스 체험장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이번 특강을 통해 많은 시민이 어싱으로 비움과 채움을 경험하길 바라며 휴식과 사색을 위한 웰니스 체험공간으로 꾸며질 정원박람회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3정원박람회는 내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되며, 순천만-국가정원-도심을 연결해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는 '삶 속의 정원'을 미래도시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군, 다음달 24일 태백산맥 전국 백일장 대회

보성군이 다음 달 24일 벌교읍 태백산맥문화관 일원에서 2022 태백산맥 전국 백일장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백일장 대회는 전남도 공모사업인 2022 문학자원 연계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참가 대상은 전국 중·초·고등학생이며, 응시부문은 시·그림 2개 분야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9월 20일 오후 6시까지 태

백산맥 전국 백일장 홈페이지로 온라인 접수(선착순)하면 된다. 백일장 성적 우수자에게는 오는 10월 22일에 개최 예정인 태백산맥문화관 개관 14주년 행사에서 시상금(문화상품권)과 상장을 수여한다. 군 관계자는 "문화와 예술에 뛰어난 인재 발굴하기 위한 대회"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